

대한민국 1등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주) 티몬

대한민국 최초의 소셜커머스 '티몬'을 운영 중이며 한 발 먼저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FIRST MOVER 전략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창업 이래 연 30%이상(거래액 기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NO.1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입니다

CTO 조직

티몬의 개발을 담당하는 CTO 조직은 우수한 기술 + 인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술력

티몬

트렌드에 즉각 반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 개발 구조를 지녔습니다. 새로운 툴과 솔루션 도입을 권장하여 다양한 기술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무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업무 환경

고도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무 특성을 반영해 재택근무/문화생활과 같은 독자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각 구성원이 최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2014.12
 언터쳐블데이 | 개발자, 기획자에게 월 2회 재택근무 지원

 2016.03
 컬러데이 | 디자이너에게 월 1회 전시, 공연관람 문화생활 지원

 2017.03
 트렌드 리포트/기술 e-book 정기 구독 지원

 2018.02
 언터쳐블데이 CTO 전체 직군으로 확대

열정과 자부심으로 이끌어내는 좋은 서비스

구성원의 프로젝트 경험담 및 노하우가 담긴 지식 공유의 글을 배포함으로써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성장합니다.

2015.02 티몬의 개발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2016.01 크리에이티브센터 I 카카오 브런치 운영 (UX/UI프로젝트 사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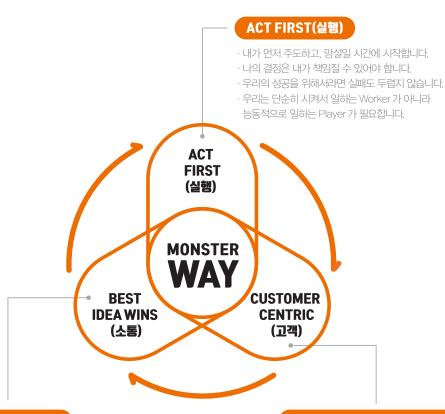
2016.07 티몬 몬소리체 폰트 배포

2017.04 CTO 정기 타운홀 I 월 1회 CTO-조직원 간 열린 소통의 장, 조직 소식/비전 공유

2017.06티몬 브랜드 정리함 배포 (https://brunch.co.kr/@creative/116)2017.11티몬 월컴킷 디자인 리뉴얼 (https://brunch.co.kr/@creative/75)



함께 성장하는 우리는 티모니언입니다



BEST IDEA WINS(소통)

- · 침묵은 회사를 죽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 \cdot 반론을 제기 할 땐 대안과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 ·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해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 자유롭게 주고받는 피드백은 나의 성장을 위한 큰 선물입니다.
- · 결정된 사항은 내 의견이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CUSTOMER CENTRIC(고객)

- · 기억하세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고객'입니다.
- · 네 일과 내 일을 따지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먼저입니다.
- · 경쟁자를 바라보면 뒤쳐지고, 고객에만 집중하면 앞서갈 수 있습니다.
- ·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결과물은 과감히 버립니다.

TMONIAN MONSTER WAY

MONSTER WAY는 NO.1 라이프스타일커머스가되기 위한 티몬의 인재상입니다.

티모니언은 늘 고객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고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때로는 치열하게 구성원들과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열린 소통을 통해 주도적이고 등동적인 태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티모니언의 자세입니다.

티모니언 라이프



EI몽 카페

사내 카페인 티몽은 티모니언들만의 이늑한 공간으로, 이곳에서 자유롭게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티움 라이브러리

매월 들어오는 신간 도서와 다양한 직무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즐거움을 느껴 보세요.



조직문화

전사워크숍, 경영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티몬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티모니언 모두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개진하며 더 나은 티몬을 만들어가는 수평적이고 지발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TMON TMON INTERNSHIP 2019 티몬은 개발자의 가치를 압니다. **민틴십 소개** ● 인원 (FRONT-END / BACK-END 개발) 선발하여 기술교육 및 과제 실행을 통한 개발 실무 경험 온라인코딩TEST 진행시 선택 ● 인턴 기간 중 우수한 평기를 받은 인원 대상으로 티몬 정규직 입사 기회 부여 지원자격 (하기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수) FRONT-END ● 4년제 대학 이공계 전공자로 기초프로그래밍 역량이 있는 분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혹은 기졸업자(경력 2년 미만) **BACK-END** FRONT- END 개발 이명 / BACK- END 개발 이명 인턴십 참여기간 총8주(2019년 7월 1일(월) ~ 2019년 8월 23일(금)) 서류전형 ▶ 온라인 코딩테스트 ▶ 인터뷰 ▶ 최종 발표 지원 방법 티몬 채용 페이지를 https://recruit.tmon.co.kr/ 통한 지원 전형 일점 (일정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04.25-05.13

- 지원직무 (FRONT-END / BACK-END 개발) 는 서류합격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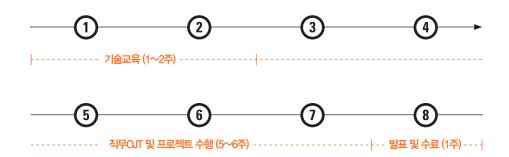
- 8월23일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될 경우 8월26일부터 연속근무 기능하신 분

- 서류접수: 2019년 4월 25일(목) 오후3시 ~ 2019년 5월 13일(월) 오후3시
- 서류전형결과발표: 2019년 5월 20일(월)
- 온라인 코딩테스트 시행: 2019년 5월 23일(목) 오후6시 ~ 오후9시
- 온라인 코딩테스트 결과발표: 2019년 5월 30일(목)
- 인터뷰: 2019년 6월 4일(화)
- 최종발표: 2019년 6월 13일(목)

summerintern2019@tmon,co,kr

INTERNSHIP PROGRAM

• 인턴십 참가자 선발하여, 기술 교육 및 과제 실행을 통한 개발 실무 경험



참고 사이트

티몬 채용 사이트 https://recruit.tmon.co.kr/ (채용공고 확인 및 입사지원)

티몬의 개발 이야기 https://www.facebook.com/tmondev (티몬 개발자의 실전 팁 및 생생한 일상 공유)

페이스북 티몬 채용 https://www.facebook.com/tmonrecruit/ (티몬 채용 관련 정보)

티몬 공식 블로그 http://blog.tmon.co.kr/ (티몬의 요모조모)

문의 summerintern2019@tmon.co.kr

재직자 인터뷰

티몬에 입사하게된 계기는?

졸업작품을 마치고 작은 프로젝트가 아닌 실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티몬 개발 인턴 지원 공고를 보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커머스 업계인 티몬을 선택한 이유는, 타 회사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유저들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개발자로서 대규모 트래픽을 갖고 있는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성능 이슈 등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티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티몬과 티몬 개발 부서의 분위기는?

우선 신입 개발자로서 티몬은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매달 두 번의 재택 근무 기회가 주이지기 때문에 편안한 환경에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드 리뷰를 통해 서로의 코드를 봐주고 배워가는 것도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원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점인데요. front—end 개발자로서 다양한 기술을 학습하고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것 만큼 매력적인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티몬에 입사하게된 계기는?

지인들과 스타트업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백엔드 관련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티몬의 기업 문회와 대규모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에 끌려 티몬 개발 인턴십에 지원하였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티몬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업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고 신입개발자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 느껴졌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기술 멘토님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세심한 케어 덕분에 모르던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북, 데스크탑, 듀얼모니터 등 개발자의 편의를 고려해주는 회사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기에 인턴 후 티몬 입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티몬과 티몬 개발 부서의 분위기는?

신입사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선배 개발자의 조언을 자유롭게 구할 수 이는 분위기 입니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부서 개발자 선배들께 코드리뷰를 받아 좀 더 품질 높은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다른 개발자 분들의 코드리뷰에도 자유롭게 참여해 의견을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티몬의 개발 문화는 주니어 개발자가 성장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범준(front-end 개발) 2018년 07월 입사 홍성민(back-end 개발) 2018년 07월 입사